

독일 월드컵과 성매매

설 동 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dhseol@chonbuk.ac.kr)

1. 들어가며
2.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
3. 자발성이라는 이름의 덫
4. 나오며

1. 들어가며

2006년 6월 9일부터 독일의 주요 도시에서는 월드컵 축구경기 대회가 열렸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대회 중 하나인 월드컵은 세계 스포츠 경기 중에서 TV시청률이 가장 높고, 시청자 수도 가장 많다. 다양한 종목을 아우르는 세계 체육 제전인 올림픽보다 월드컵이 훨씬 흥미롭고 집중도도 높다고 한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경기의 TV 시청자 수는 200억 명이었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64개 경기의 시청자 수는 288억 명이었고, 2006년 독일 월드컵 경기의 시청자 수는 400억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컵과 올림픽은 국가대항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올림픽이 강대국들의 국력 과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월드컵은 국제사회의 서열과 전혀 상관없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월드컵에서는 브라질·독일·이탈리아·프랑스·포르투갈 등이 축구 강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신흥 축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간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을 떠나, 축구 기술로 세계 각국 대표팀이 규칙을 준수하며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이 세계인의 집중적 관심을 끄는 핵심 요인이다.

2.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

세계인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높다보니, 경기를 관전하기 위하여 월드컵 개최국인 독일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도 엄청나다. 독일 월드컵에는 300여만 명의 외국인 응원단과 관광객이 몰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들의 대다수는 남성이다. 독일 정부는 그들 중 상당수가 독일에서 성매매 여성을 찾을 것으로 보고, 손님맞이 대책을 수립하였다. 2002년부터 성매매를 ‘지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이유로 합법화하였고, 이번 월드컵 대목을 앞두고는 업자들뿐 아니라 정부도 외국인 응원단과 관광객의 성매매 수요 대책을 강구하고 나선 것이다. 독일은 정해진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간주하여 합법적으로 허용하면서, 알선업자들과 여성들로부터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에다 노후생활에 대비한 연금까지 징수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성매매 종사자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감시·강제노동·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막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독일 정부의 월드컵 관련 성매매 대책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일 정부는 성매매 허용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표지판을 주요

도시의 곳곳에 세웠다. 표지판에는 금지를 나타내는 붉은 원 안에 제한구역이라고 적힌 문구와 함께 가로등을 등지고 긴 부츠를 신은 여성이 그려져 있다. 이 거리 표지판은 월드컵을 구경하러 온 외국인 응원단과 관광객이 도시의 아무 길거리에서나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협상하거나, 외국 출신의 성매매 여성들이 독일 월드컵 개최 도시에 와서 “불법 영업”을 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세계 각국의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고소득을 기대하며 월드컵 기간에 관광 사증을 발급받아 독일로 몰려와서 “불법 영업”을 하였고, 그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독일 정부는 외국인 응원단과 관광객의 성매매 수요를 ‘현재 허가된 성매매 지역’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월드컵 경기 기간 동안 특설 성매매촌 건립을 허가하였다. 베를린에는 경기장 주변 약 3000㎡의 터에 650명의 남성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성매매촌이 설치되었고, 도르트문트와 쾰른에도 유사한 장소가 만들어 졌다. 그곳에는 일반 화장실 크기로 성행위 박스 혹은 섹스 오두막이라 불리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과 성 구매자 신변 노출 방지 장치 등이 딸려 있으며, 오두막 내부에는 콘돔이 비치되어 있고, 샤워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셋째, 독일 정부는 월드컵 경기 기간 동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수요가 약 4~1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족한 성매매 여성의 확보를 위한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독일의 성매매 종사자 수는 약 40여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들 중에는 독일 여성도 있지만, 외국인 여성도 적지 않다. UN의 인신매매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불가리아의 18~25세 성매매 여성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인접국인 독일이다. 또 2005년 미국 국무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독일에서 강제 성매매로 입건된 1,235명의 희생자 가운데 4분의 1이 러시아 여성이었다. 국제NGO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에서는 월드컵 기간 성매매를 위해 중·동부 유럽과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약 4만 명의 여성이 추가로 충원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를 우려한 독일 정부는 “강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마지막 경고”라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인신매매 등 특정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 전국 술집이나 역 주변 거리에 강제 성매매 금지 경고문 부착 등이 핵심 내용이다. 또 강제 성매매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직통전화도 개설하였다. 독일 경찰은 “유럽범죄조직들이 동유럽 여성들을 대상으로 독일의 디스코텍·술집 등에서 일할 수 있다고 속인 채, 그들을 강제 성매매에 동원하려고 할 것”이라며 특히 10~20대 여성들이 범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였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하루에 10유로밖에 받지 못하며 강제 성매

매에 시달리는 한편,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강제하는 업자는 하루에 150 ~ 300유로를 챙기고 있다”고 한다.

3. 자발성이라는 이름의 덫

시민단체들은 월드컵 기간 국제 인신매매 조직이 횡행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여 정부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독일 시민사회에서도 ‘강제 성매매’는 문제 삼지만 ‘합법적 성매매’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민단체 활동가들 중에는 ‘자발적 성매매’를 옹호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들은 성매매 여성에게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하고, 성매매를 평범한 직업으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처벌이 있었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으므로, 자발적으로 이 업종에 종사하겠다고 결정하는 여성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독일 경찰은 월드컵 기간 중 강제 성매매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소보다 성매매가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강제 성매매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데려온 한 독일 남성을 인신매매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했으나, 강제적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그냥 풀어주었다’는 발표가 있었을 뿐이다.

‘강제 성매매’에만 초점을 맞추는 독일 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세계사회의 불만 여론도 적지 않다.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에서는 “성매매는 스포츠가 아니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월드컵 축구경기 대회 개막 전에 125개국 6만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수상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스웨덴은 월드컵 기간 중 성매매를 완전히 금지할 것을 독일에 요구하였지만 이러한 주장은 역시 묵살되었다.

문제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역 안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 중에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중·동부 유럽과 중·남부 아메리카의 저개발국 출신 외국인 여성 중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비율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인신매매의 식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인신매매는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구분되는, 다음 여섯 가지 특성을 가진다. ① 사람을 사고파는 것을 중개하는 가해자들이 있다. 가해자는 모집자, 포주, 소개업자, 중개인, 성매매 업소 주인, 고용주, 구매자 혹은 범죄 조직 등 다양한 형태

를 떼낸다. ②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된다. 여성, 18세 미만의 아동(minors), 성인 남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③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그 거래를 성사시킨다. 가해자의 통제 하에서 구조적으로 속박 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선택은 결코 자발적인 것이 될 수 없다. ④ 피해자는 자신의 원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이주 대상지는 국내 또는 국외, 가까운 곳 혹은 먼 곳 등 다양하다. 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주를 위해 종종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⑥ 형식적 법률적 지위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유를 상실하고 착취당하여 실질적으로 시민권(citizenship)을 상실한 상태에 처해 있다.

4. 나오며

사회제도는 나라와 시기에 따라 제 각각인 경우가 종종 있다. 자발적 성매매, 마리화나(marihuana, 대마초) 흡연, 상업적 결혼중개행위 등 그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성매매 합법화 정책과 금지 정책은 나름대로 논거를 갖고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이주의 시대(age of migration)에 수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을 계기로 특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 이동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독일 정부가 강조하고 있듯이, ‘강제적 성매매’는 전 인류적 차원에서 엄단해야 할 중범죄라는 점에서 세계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독일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외국인 여성들까지 데려다가 증명할 수 없는 “자발적” 성매매를 시키는 것은 저급한 상업주의일 뿐이다.

모든 인간은 사회구조의 강제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저개발국·빈곤·차별 등의 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경우, ‘자발성’ 자체도 시비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심청은 자신이 인당수 바닷신의 제물로 희생될 것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청나라 상인에게 팔았다. 사회적 불평등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발적 성매매’ 합법화 정책이 가지는 파급효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